

300-5-132 신문조서(權榮台 외 33명 치안유지법 위반) 14

■ 權榮台 외 33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기록 수록(문서 300-5-119부터 계속)

- 卞洪大는 1933년 3월 金元經·李星出·金永斗·李貴童과 會晤하였으며, 농민에게 공산주의 의식을 주입·선동하여 투쟁하고 공산제도를 실시할 목적으로 농민조합을 조직할 것을 협의하고, 金炯善과 협의하여 仁川 부두노동자를 규합·선동하여 투쟁을 시켜 공산제도 실시를 위한 노동조합 조직을 협의하였다. 金元經은 卞洪大의 범죄사실에 동조했으며, 沈承文은 卞洪大와 같이 농민조합 조직을 협의 하였다. 崔永昌·朴壽昌은 여주에서 李星出·池玉成과 회합하여 농민조합 조직을 협의하였다.
- 1934년 7월 31일 金永斗 외 14명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은 경기도 경찰에서 검사정에 송치되었다. 1934년 7월 31일 검사의 金永斗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다. 동일 卞洪大·金元經·李貴童·沈承文·尹寧燮·金貴星·李星出·崔永昌·朴壽昌·池玉成 등의 1회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다. 이들은 이 날짜에 西大門刑務所에 구류되었으며, 본적조회가 있었다.
- 1934년 8월 7일 검사국에서 金永斗 외 16명의 사건기록이 예심계 판사에게 송부되었으며, 차압이 있었다. 1934년 8월 8일 2회 피의자 신문조사가 卞洪大·金永斗·金元經·李貴童 등에 대하여 실시되었고, 8월 9일 沈承文·尹寧燮·金貴星·李星出·崔永昌·朴壽昌·池三成 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가 진행되었다.
- 1934년 8월 10일 검사의 卞洪大 외 5명에 대한 예심이 청구되었고, 호적조회가 실시되었으며, 小松誠五郎의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었다. 구류기간이 갱신되어 송달되었다. 11월 14일 판사의 1회 피고인 신문조사가 卞洪大·金元經·李星出·沈承文·崔永昌·朴壽昌 등에 대하여 진행되었고, 구류갱신이 결정되었으며 송달 되었다.
- 1935년 3월 18일 崔永昌의 保釋에 대한 意見을 구했으나 檢事의 不許의견으로 형무소에 수감되었고, 卞洪大 등의 구류갱신이 있었다. 1935년 5월 30일 피고인 신문조사 2회가 있었다. 卞洪大는 3회는 5월 31일, 金元經 6월 3일, 李星出 2·3회, 6월 4일 沈承文, 6월 5일 崔永昌, 6월 6일 朴壽昌 등의 신문조사가 西大門刑務所에서 있었으며, 指紋 채취가 있었다.